

교환학생 체험수기- Lamar University

2015

심리학과 황유진

안녕하세요! 저는 2018학년도 2학기(8월~12월)에 교환학생으로 미국 라마대학(Lamar University)에 다녀온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15학년 황유진입니다. 인터넷에 라마대학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다른 학우분들은 교환학생에 가시기 전에 미리 잘 준비하셔서 더 알찬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수기를 작성합니다.

1. 라마대학 특징과 팁 Tip

1) 날씨

라마대학은 Texas 주의 대도시 중 하나인 휴스턴에서 한시간 반 정도 떨어진 보몬트 Beaumont라는 도시에 위치해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시간 반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정말 가까운 거리라고 하더라구요. 미국의 제일 남쪽에 위치한 Texas의 특성 상, 날씨는 정말 덥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후덥지근한 날씨는 아니지만 기온 자체가 워낙 높고, 끝없는 여름(11월까지 더웠습니다)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옷은 반팔과 반바지 위주로 가져가시고, 얇은 겂옷 위주로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패딩도 챙겨갔었는데, 학기가 끝난 후 겨울에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실 계획이라면 얇은 패딩 챙기는 것 추천드립니다.(다른 도시로 여행 갈 계획이 없으시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2) 교환학생 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라마대학이 다른 미국 학교들에 비해 교환학생 제도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환학생으로 갔던 시기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은 저희 충남대학교 학생밖에 없었으며, 프랑스에서 3명 정도가 왔다고 들었으나,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른 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미국인들보다는 다른 나라 학생들(중국, 태국 등등)과 더욱 친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라마대학은 전혀 달랐습니다. (동양인은 저희 충남대학교 학생들 뿐이었습니다.) 이 특징이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영어가 많이 늘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이 없다보니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인과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 다른 교환학생들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영어가 되든 안되든 살기 위해서(?) 미국인들과 접촉해야 하는 상황은 영어 실력을 늘리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환학생들이 없는 상황은 확실히 많이 외롭고, 인종차별을 당하기 쉬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눈에 띄고, 그렇다 보니 은근슬쩍 당하는 인종차별들을 겪습니다. 학사 일정이나 관련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진정한 아웃사이더(?)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환학생 제도가 정

립이 잘 되어있지 않아서 저와 같이 간 친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가기 직전 국제교류 담당자 분이 바뀌었던 경험, 이로 인해 제대로된 소통이 어려웠던 점, 8월 14일까지 미국에 도착해서 오리엔테이션에 필수적으로 참여 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는 오티 참여 대상이 아니었던 점(이것 때문에 개강보다 일주일을 일찍 갔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영어 실력을 늘리기에는 정말 강력 추천하는 학교입니다.

3) 기숙사

저는 2인 1실 방을 선택하여 묵었습니다. 개인 방이 있고 거실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방도 그렇게 작지 않고 침대와 책상, 옷장은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본부에서 이불을 제공해주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챙겨가시거나 거기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는 미국 문화 특성 상 내부 청결은 그냥 그렇습니다. (바퀴벌레 가끔 나오고..ㅠ) 욕실도 개인 세면대 있고, 변기와 욕조만 공유하는 형식이라 좋았습니다. 룸메이트는 미국인과 매칭됩니다. 룸메이트는 정말 운이 따라야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간 총대 학우 한 분은 룸메이트와 문화적인 차이 + 맞지 않는 성격으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다른 총대 학우 한 분은 룸메이트 분과 정말 친하게 지내서 학기 끝나고 며칠 룸메이트 집에서 묵기도 했습니다.

1층에는 공용 식당과 조리 가능한 도구들(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싱크대 등) 있습니다. (간단히 음식 먹을 수 있게 식탁 몇 개와 의자도 있습니다) 음식 해먹거나 고기 사서 구워 먹었고, 총대 학우 분들과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등 그 공용 식당 공간을 정말 쓸쓸하게 사용했습니다.

4) 식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에 가기 전 국제교류본부 담당자 분과의 메일을 통해 meal plan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 식당(dining hall)을 일주일에 몇 번 이용할 것인지 + 다른 식당이나 카페(교내 스타벅스, 파파존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14번 먹는 meal plan을 선택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학기 말로 갈수록 학생 식당이 질려서 잘 안 먹게 되더라구요. 그래도 14번이라 밥 걱정 없이 살 수는 있어서 학우분들은 잘 판단 하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식당은 뷔페식이며, 매일 파스타, 피자, 국제 음식(대부분 멕시코 음식), 햄버거, 디저트 등을 무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대체적으로 짠 편이며(미국이라 어쩔 수 없음...ㅠㅠ) 그래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살이 많이 찼습니다..)

학생 식당 말고도 파파존스, bbq 가게, 생과일 주스 가게, 스타벅스가 있는데, 가끔 이용할 때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5) 수업

수업과 시험은 대체적으로 정말 쉬웠습니다. 저는 제 전공 심리학 네 과목을 들었는데, 주로 1-2학년 과목으로 들었고, 3학년 과목을 하나 정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충남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정도로 하시고 과제만 다 잘 내시면 다 성적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실제로 저 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충대 학우분들 모두 성적 다 잘 받았습니다.)

6) 프로그램

다른 미국 대학교도 비슷하겠지만, 아메리칸 축구 행사라든지, 할로윈 데이 행사 등 학교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교환학생들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은 많이 부족한 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교환학생들의 숫자도 적을 뿐 아니라 서로 간의 교류를 돕는 프로그램도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라마대학에 한국문화클럽(KCC)이 있어서 한국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친해진 것이 제 교환학생 생활 중 제일 잘한 일입니다.

7) 학교 주변 시설

미국의 특성상 차 없이 움직이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행히 앞서 말한 KCC 친구들이 차를 많이 태워줬고, 주변 월마트나 베트남 슈퍼에 데려다 줬습니다. 베트남 슈퍼에 휴스턴 한인회에서 만든 김치나 한국 컵라면, 과자 등이 있는데 이 음식의 도움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좀 값이 나가더라도 미국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사시기를 강력 추천 드립니다.

차를 타고 15-20분 정도 나가면 시내가 나오는데, 버팔로왕, 햄버거, 일식집 등등 음식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외식할 때 돈이 들기는 해도 행복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많이 부탁하세요.

휴스턴(차로 편도 1시간 반 거리)에 한인 마트가 있습니다. 한국 식당도 있구요. 저는 학기 중에 미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한 3번 정도 방문했는데, (제가 미국 음식에 적응을 잘 못해서) 정말 바리바리 한국 음식 사 들고 왔었습니다..

2. 가기 전 짐 싸기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고, 좀 과하게 짐을 챙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리바리 싸 들고 간 것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사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간단히 챙겨가셔도 되고, 저처럼 익숙하지 않은 제품은 쓰기 싫다!하시는 분들은 제가 챙겨갔던 짐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화물로 28인치 캐리어 하나, 24인치 캐리어 하나 부쳤구요, 기내에는 백팩 하나, 크로스백 하나 가지고 탔습니다.

[V] 세안용 스펀지 2개

- [M] 세안용 화장솜 2팩
- [M] 스킨용 화장솜 3팩
- [M] 스킨 대용량 2병
- [M] 로션 대용량 2병
- [M] 립앤아이리무버 1병
- [M] 클렌징워터 2병
- [M] 클렌징 폼 2개
- [M] 선크림
- [M] 화장 파우치
- [M] 립 파우치
- [M] 거울
- [M] 빗
- [M] 눈썹칼
- [M] 파운데이션 스펀지 2개
- [M] 여름 옷
- [M] 가을 옷
- [M] 겨울 옷
- [M] 양말
- [M] 스타킹
- [M] 속옷
- [M] 생리대
- [M] 물티슈
- [M] 노트북
- [M] 공책
- [M] 파일
- [M] 필통

- [M] 쇠젓가락 / 나무젓가락
- [M] 이어폰
- [M] 핸드폰 충전기 2개
- [M] 칫솔 치약 적당히
- [M] 여행용 세안도구
- [M] 샤워볼
- [M] 세안 머리띠
- [M] 수건
- [M] 우산
- [M] 양산
- [M] 외출용 슬리퍼/샌들
- [M] 한국 음식
- [M] 옷걸이
- [M] 손톱깎기 / 귀이개
- [M] 외국인 친구 선물용 물건
- [M] 에코백
- [M] 앞머리 헤어롤
- [M] 베개 이불
- [M] 보조배터리
- [M] 휴대용 선풍기
- [M] 구급약(종합감기약, 두통약, 밴드, 연고, 진통제, 모기약)
- [M] 핸드폰 케이스
- [M] 여분 볼펜 /형광펜 /샤프심 /수정테이프
- [M] 건전지
- [M] 욕실화
- [M] 전압변환기

[M] 랜선

[M] 목베개

[M] 비누

[M] 가위

[M] 비닐봉지

[M] 지퍼백

[M] 여권

[M] 비자

[M] 입학허가서

[M] 여권사진

[M] 토플성적표

[M] 커피믹스

[M] 유심칩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음식에 워낙 적응을 못하고 잘 못 먹었던 사람이라, 한국 음식(햇반, 김, 고추장, 스팸 등) 챙겨간 것으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휴스턴 한인 마트 가서 사오실 수도 있지만, 워낙 거리도 있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가야하는지라 초반에는 제가 가져갔던 한국 음식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3. 미국에 가서..

미국은 정말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실제로 제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상 먼저 도와주거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친해지면 정말 마음 깊은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헤어지면서 서로 께안고 영영 올려주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사귀 친구들이 한국으로 여행 온다며 저와 층대 학우분들을 만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에 또 올 테니 저희 집에서 묵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고, 저희를 도와 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면 만국 공통으로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스피킹이 잘 안되어서 많이 더듬더듬 대면서 이야기 하기도 하고,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해서 물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딪히며 이야기 하고 또 소통하려 노력하고 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영어 실력도 자연스럽게 느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사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교환학생 경험은 제 대학 시절 중 제일 잘 한 일이고, 제일 행복했던

경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학우분들께서도 좋은 기회를 통해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기를 마치고 10박 11일 정도 미국 여행을 했었습니다. 미국 국내선을 타는 것, 여행 일정 짜는 것, 경비 등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건 교환학생 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아니므로 여기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언을 얻고 싶으시면 dde03195@naver.com으로 연락 주세요!! 정말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교환학생 생활 되세요!!